



여수 송기홍



영광 서화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훈



회순 박순철

순천시, '28만 시민과의 대화' 갖는다

순천시는 20일부터 승주읍을 시작으로 3월 15일까지 24개 읍·면·동에서 '2018년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을 초청해 2018년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특히, '지방분권 실현'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극, 콩트 등 진행 프로그램을 제작·공연하고 우수사례 발표 등 지역주민이 직접 성과와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순천다운 한마당'이 눈길을 끈다. 시정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해 연극, 콩트, 노래 등 재미를 더해 시민이 직접 시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들

오늘부터 내달 15일까지...24개 읍·면·동

시민주도적 참여 프로그램 확대 자치분권 실현



이날 순천시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모습이다. 이날 순천시에서는 읍면동에 서부터 시작된다. 이날 순천시에서는 읍면동에 서부터 시작된다. 이날 순천시에서는 읍면동에 서부터 시작된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2018년 주요 시정방향인 '일자리 허브 도시, 복지정책, 잡월드, 마그네슘 클러스터' 등 시민과 누구나 행복을 누리는 혁신정책에 대해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순천시는 기존에 시에서만 편성하던 예산을 읍면동에서 필요사업에 따라 직접 편성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시민과 함께 시정을 추진한다'는 조총훈 순천시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총훈 시장은 "민선6기 3년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했고 실제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뤘다며, 2018년에도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한전공대 순천유치위원회' 발족 촉구

주윤식 순천시의회

한전공대 유치를 전남 동부권도 경쟁에 뛰어 들었다. 광주와 나주시가 팽팽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권도 가세해 앞으로 지역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윤식 순천시의회 부의장(2선)은 13일 한전공대대학의 순천 유치에 관한 '가정 한전공대 순천유치 시민위원회' 발족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 인구 190여만명중 80여만 명이 모여있는 전남 동부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한전공대는 한국전력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5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하는 공과대학이다.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POSTECH)에 버금가는 신재생능

색에너지전문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범시민 추진위원회인 한전공대 유치위 발족을 제안한 주 의원은 "유치위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한전공대 순천 설립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한전공대가 나주와 광주 인근인 전남 중부권에 설립되면 인구나 산업, 공공기관 등지의 편중이 심화된다"며 "도청의 무안 이전으로 동부권이 소외되는 현실에서 한전공대를 순천에 세워 광주·전남의 도시 불균형 발전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당위성을 언급했다.

또한 "부지 선정과 입지 여건, 기반시설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과 정치인,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고 촉구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 빛가람 스마트미디어 스테이션 특별 전시회

천연 쪽 염색 접목한 프랑스 자수·펠트 30여 점 전시

나주시는 빛가람 호수공원에 위치한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2층 전시실에서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프랑스 자수 및 펠트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해 10월 30일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개관을 기념해 열린 천연염색 작품전시회에 이은 2번째 전시회로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라는 테마로 박연신 작가의 프랑스 자수와 김연희 작

가 펠트작품 30여점이 전시됐다.

프랑스 자수는 그림이나 문양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 자수기법을 국내에서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박연신 작가는 유화시절 배운 프랑스 전통 자수에 나주 전통 쪽 염색을 접목한 작품을 선보였다.

또, 펠트는 실로 제작한 섬유가 아닌 양모를 가운 압축하여 피복 형태로 만든 것으로 김연희 작가는 이

번 작품에 2018년 새해 시작의 의미를 담아 다양한 색과 문양으로 조형미를 표현했다.

빛가람 호수공원 문화랜드마크로 손꼽히는 스마트미디어 스테이션은 LED유리외벽 외벽에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구현하는 최신 기술의 컨테이너 형태 시설이다.

나주시와 LH,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7년 체결한 콘텐츠거점 지역 개발 활성화사업의 대표적인 결과물로서 총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지난 해 10월 30일 개관했다.

1층은 주민 센터 및 일자리 정책 홍보공간으로 2층은 다양한 기획 전시실 운영되고 있으며, 아년에는 시민 참여 UCC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 외벽전면에 구현되고 있다.

나주시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천연염색에 프랑스 자수와 펠트가 결합한 색다른 작품을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전시회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 예술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2층 기획 전시실을 시민이 꾸며가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농식품가공 창업 기초반 모집

내달 2일까지...농산물가공센터 이용 희망 농업인 필수 이수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 2일까지 2018년도 농식품가공 창업 기초반 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가공창업 준비하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3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10회 30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광양시에 주소가 있는 농업인이나 생산단체, 예비 창업농업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은 ▲식품가공기초 ▲식품관련법규 ▲식품제조공정이해 등 농식품가공창업에 관한 필수적인 기본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한 후 시

농산물마케팅과 농식품가공팀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고 안전한 지역농산물 가공전문가를 육성하고,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원의 다양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훈 농식품가공팀장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예비창업자, 기존창업자 등 가공기술 능력개발과 경험파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지역농산물 가공공동체 조직과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1-797-3565)로 연락하면 된다.

광양=김충권 기자

회순 작은 영화관, 행복센터로 '각광'

개관 일주일 만에 2천여명 찾아



회순 작은 영화관 '회순시네마'가 개관 일주일 만에 2천여명의 관객이 찾는 등 회순 군민의 행복센터로 각광 받고 있다.

19일 회순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관한 '회순시네마'는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각종 블로그, SNS 등에 소개되면서 관람객이 꾸준히 늘어 설 연휴인 17일에는 하루 500명이 넘는 사람들로 영화관이 하루 종일 북적거렸다.

전남에서 6번째로 개관한 '회순시네마'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가족단위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으면서 개관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 2,000여명을 기록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회순 시네마가 인기를 끈 것은 가까운 곳에서 최신 개봉작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관람한 한 주민은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시설을 잘 갖춘 것 같다"며 "가까운 곳에 가족들과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회순시네마는 17억 9천만원의 들여 군민회관 2층을 리모델링해 3D 입체 영화까지 상영할 수 있는 최신형 영상시스템과 1관(47석)과 2관(77석) 등 총 124석 규모의 2개의 상영관을 갖췄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은영화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한다. 연중무휴로 매일 5~6편의 최신 개봉작이 상영된다.

관람료는 일반 6천원, 65세 이상 및 청소년은 5천원으로 대도시 상업영화관에 비해 40%정도 저렴하다.

'회순시네마'는 김명민·오달수 주연의 '조선명탐정 3'을 시작으로 '열혈', '홍부', '골든슬램퍼' 등 최신 개봉작을 상영한다.

회순시네마 영화관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wasun.ssinema.org)나 스마트폰 작은영화관 앱으로도 할 수 있다. 구충곤 회순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휴식과 여가를 책임지는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해 군민의 공공 문화시설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회순=박순철 기자

회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암삼